

시한부 환자에 360km 피자 배달 ‘감동’

美 10대 청년 옛 단골 사연 듣고 3시간 넘게 운전 전담 25년전 맛 본 부부 벽찬 눈물, SNS에 사연 올려 화제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생을 정리하고 있는 과거의 단골 손님을 위해 225마일(약 362km)이나 떨어진 곳까지 피자를 배달해준 점원의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다.

리치 모건과 아내 줄리는 25년 전 미시간 주 배틀 크릭에 살 때 2주에 한번씩 급어를 받을 때마다 동네에 있는 ‘스티브스 피자’를 찾았다. 이 곳에서 먹는 피자를 가장 좋아했기 때문이다.

현재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에 사는 부부는 올해 아내 줄리의 생일에 오래 전의 추억이 깃든 배틀 크릭에 있는 스티브스 피자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리치는 암이 급격히 악화돼 부부의 추억여행을 포기했다. 현재 그는 아내의 보살핌 속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정리하고 있다.

CNN과 NBC 뉴스 등 미 언론들은 22일

(현지시간) 리치 모건 부부와 감동적인 피자 배달 사연을 보도했다.

줄리의 친정아버지 데이비드 돌키는 딸과 사위가 스티브스 피자를 먹으러 여행 갈 계획을 세웠다가 암 증세가 악화돼 무산된 것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에 피자 가게에 전화를 걸었다.

돌키는 스티브스 피자의 점원에게 딸과 사위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바쁘더라도 문자메시지 한 통 보내줄 수 있겠는지 물어봤다. 단골손님이 오랜만에 가게를 찾아오길 바랐지만 그 계획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움이 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부탁한 것이었다.

그런데 불과 5분 뒤 다시 피자 가게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화기에선 어떤 피자를 원하느냐는 말이 나왔다.

친정아버지 돌키는 225마일이나 떨어진 가게의 점원이 어떤 피자를 원하느냐고 의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마지막 생을 정리하고 있는 과거의 단골손님을 위해 225마일(약 362km)이나 떨어진 곳까지 피자를 배달해준 점원 돌트 세퍼(사진)의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다. 뉴스

외의 질문을 한 것에 놀라면서 엄격결에 “페퍼로니피자와 버섯피자”라고 대답했다.

돌키에게 전화를 걸어 주문을 받은 이는 스티브스 피자 가게 업주의 손자인 돌트 세퍼였다. 18살인 세퍼는 대뜸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피자 두 판을 배달해주겠다고 말했다.

믿기 어려운 얘기였다. 미시간주에서 인디애나주까지 배달이 가능한 거리도 아니거니와 스티브스 피자는 원래 배달서비스를 하지 않는 가게였다.

하지만 세퍼는 정말로 3시간30분이나 차를 몰고 가야하는 장거리 배달에 나섰다. 피

자가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

피자 두 판을 들고 먼 길을 왔던 세퍼는 “전화로 사연을 듣고 두번 생각할 것도 없었다”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세상에 돌도 없는 귀한 피자를 받아든 리치와 줄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줄리는 일주일 전 이같은 이런 스토리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피자를 건네받은 줄리는 “이 세상에는 더 많은 돌트 세퍼가 필요하다”는 소망을 썼다. 뉴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살 카슈끄지 살해 후 은폐를 위해 대역을 쓴 장면이 포착됐다. 왼쪽은 사망 전 이스탄불 총영사관으로 들어가는 카슈끄지의 모습이며 오른쪽은 같은날 카슈끄지와 똑같은 옷차림으로 위장한 요원이 총영사관 뒷문으로 나오는 장면. 뉴스

사우디, 카슈끄지 살해 후 대역 세워

CNN 영상 공개...암살팀 일원으로 알려져

사우디아라비아가 언론인 자살 카슈끄지 살해 후 은폐를 위해 대역을 쓴 장면이 포착됐다.

22일(현지시간) CNN은 터키 고위 당국자를 인용, 카슈끄지를 사망케 한 15명 중 한 사람이 카슈끄지의 옷을 입고 위장한 모습이 감시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CNN이 공개한 영상에 의하면 카슈끄지와 체격이 비슷한 한 남성이 카슈끄지의 옷, 가짜 수염, 안경을 쓰고 사우디 영사관 뒷문으로 걸어 나갔다. 해당 남성은 카슈끄

지 암살팀 일원인 무스타파 알 마다니로 알려졌다.

터키측 관계자는 “심문을 위해 대역을 쓸 필요는 없다”며 “사전에 계획된 살인이고 시신은 영사관에서 옮겨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우디측은 카슈끄지 사망은 우발적인 것이며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마다니의 대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CNN은 전했다. 뉴스



세계 최장 55km 강주아오 대교 개통

세계 최장 대교인 총연장 55km의 홍콩-주하이-마카오를 연결하는 강주아오 대교 개통식이 23일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렸다. 선전 등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묶어 물류와 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1국2체제’를 시행하는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대교의 완공으로 그간 육로를 이용할 경우 4시간이 걸리던 주하이와 홍콩 국제공항 사이를 45분만에 주파할 수 있다. 뉴스

美 복권 당첨금, 천문학 숫자 경신

메가밀리언 16억 달러...파워볼 6억 2천만 달러

미국의 복권 메가밀리언과 파워볼의 잭팟 당첨금이 계속 치솟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현재 메가밀리언의 잭

팟 당첨금은 16억달러(약 1조8천200억달러), 파워볼의 잭팟 당첨금은 6억2천만달러(약 7천400억원)로 각각 올라갔다.

메가밀리언 당첨금은 역대 최고액이고, 파워볼은 역대 6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메가밀리언은 23일 밤에, 파워볼은 24일 밤에 다시 추첨한다.

CBNC는 잭팟 당첨금에 따른 놀라운 세금 규모를 보도하며 이번 복권의 특별한 당첨금을 조망했다. 당첨자가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든, 30년

에 걸쳐 나눠받든 기본적으로 24%의 연방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메가밀리언 잭팟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9억400만달러이고, 파워볼 잭팟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3억5천400만달러다.

메가밀리언 잭팟 당첨 확률은 3억 260만분의 1이고, 파워볼 잭팟 당첨 확률은 2억9천200만분의 1이다. 뉴스

트럼프, 사우디 해명에 “불만족”

“카슈끄지 죽음, 말바닥까지 캐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사우디 출신 작가 자살 카슈끄지의 죽음에 대해 사우디측이 내놓은 설명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고 밝히고, 현장에서 돌아온 미국 측 요원들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살면서 사우디 왕가에 대한 비판적인 칼럼을 써왔던 59세의 카슈끄지는 이달 초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아라비아 영사관에 들어간 뒤 실종됐으며 이후 피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우디 측은 그가 싸움을 벌이다 살해당

했다고 발표했지만 터키 검찰은 그가 15명으로 구성된 사우디폭탄에 의해 공격을 당해 피살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대통령은 22일 사우디 정부의 해명을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들은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의 말바닥까지 캐낼 것이다.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에 우리 요원들이 있다. 터키에도 최고의 정보계통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오늘 밤이나 내일이면 돌아온다”고 말했다.

우버, 2021년 까지 드론 음식배달 계획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인 우버가 오는 2021년까지 드론을 이용한 음식배달 서비스 계획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버의 다라 코스로사히 최고경영자(CEO)가 드론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버는 2021년까지 배달용 드론의 상업

적 운영을 총괄할 임원도 구하고 있다.

우버 드론 배달을 담당할 임원은 내부 직원인 우버 익스프레스를 통해 안전과 합법, 효율성, 그리고 사업확장성을 이끌어낼 비행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드론을 통한 음식 배달 서비스는 처음에는 주로 햄버거나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 배달 위주가 될 전망이다.

코스로사히 CEO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플라잉 버거(flying burgers)가 필요하다”면서 5분에서 30분 사이에 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광주 최대 변화가! 최고 광고효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전광판 광고 (신세계안과 옥탑)

DISPLAY 광고문의
신세계안과 1566-9988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SHINSEGAE EYE CLINIC

<p>01 광주 최고 유동인구 밀집지역 신세계백화점, U-Square, 광주종합버스터미널, e마트 등</p>	<p>02 광주 최대 광복대로에 위치 20차선 차량 정체 극심 지역, 57개 버스노선 경유지(광주 최대)</p>
<p>03 무등일보, 뉴시스 뉴스와 생활정보 편성, 높은 주목도!</p>	<p>04 두 개 (무진대로, 죽병대로) 광복대로에 노출되는 광고효과 X2</p>

1일 100회, 월 3,000회 노출!! (20초 광고 기준)

- ▶스크린크기: 13.6m x 7.7m
- ▶해상도: LED풀컬러 국내 최고 화질
- ▶하루 18시간, 20구좌 상업 광고노출
- ▶광고노출시점: 계약 즉시 가능

믿을 수 있는 그룹의 No.1 광고회사

SRB 미디어 그룹 **SRB 애드** 문의 062) **510-4650**